

‘디지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가 개관 10년 만에 대대적인 새 단장을 했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편집실과 교육실을 개편해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광주센터는 그동안 2층 스튜디오와 3층 부조정실의 아날로그방송 시스템 노후화와 제작공간이 분리돼 있어 제작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층과 3층으로 나뉘어 있던 제작공간을 2층 스튜디오로 통합했다.

138인치 대형 멀티비전(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이 비치됐고, 스위처를 통한 현장녹화도 가능해졌다. 방송용 고화질 ENG카메라 3대가 설치되는 등 실제 방송국 스튜디오와 시스템을 재현했다.

뉴스제작과 진행, 토크쇼 등 스튜디오를 활용한 종합구성물 등을 제작할 수 있고, 촬영 후 편집과 상영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곳에서는 가족뉴스 만들기 등 스튜디오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방문객들의 안정적인 제작·교육환경을 위해 기존 2층에 위치한 2개의 미디어교육실을 3개로 확대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편집프로그램 교육 등을 준비했다.

‘미디어교육실1’은 총 21인치 규모로 기존 편집프로그램 프리미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베가스’와 ‘프로

10년만에 새단장...이용자 중심 개편 실제 방송국 스튜디오 재현 등 대변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전경



스튜디오

툴’도 추가돼 총 3개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운영된다.

16인석 규모의 ‘미디어교육실2’는 ‘파이널 컷’ 프로그램 전용 교육시설로 매킨토시 컴퓨터를 활용한 보다 전문적인 편집교육이 진행된다. 베가스 전용 ‘미디어교육실3’은 26인석 규모다.

편집실도 자리를 옮겼다. 4층에 있던 ‘편집실’이 1층 ‘24시간 편집실’ 옆으로 이동했다. 특별 작업 과정에서 1층과 4층을 옮겨다녀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층 ‘24시간 편집실’은 ‘공동편집실’로 이름을 바꾸고 최종편집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팀 단위로 모여 할 수 있게 했다. 워크스테이션 2대와 매킨토시(Macintosh) 컴퓨터 1대가 비치돼 있고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프리미어 5.5’가 갖춰져 있다.

기존 편집실은 자리를 옮기면서 이름도 ‘디지털편집실’로 명칭을 바꿨다. 주변의 방해로 받지 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돼 8칸의 공간이 확보됐다. 1~6번 자리는 ‘프리미어 5.5’가 설치됐고, 7~8번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파이널 컷 등 편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개관 10년을 맞는 올해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제작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1인 미디어제작 시대에 따라 심야시간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맹장은 필요하다

박테리아 저장고...면역체계 유지 기여

사람 몸에 없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장기, 맹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국 애리조나 미드웨스턴대 헤더 스미스 부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맹장이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하면서 면역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스 부교수 연구팀은 맹장의 진화를 알아보기 위해 포유류 533종의 내장장 그 환경 특성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맹장이 각기 다른 종에서 각각 30차례에 걸쳐 진화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맹장이 한 번 나타나면 진화 열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맹장이 있는 동물은 내장 내 림프 조직의 밀도가 높았는데, 이는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림프 조직은 몸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종류의 박테리아가 자라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박테리아는 맹장에 보관되는 까닭에 설사병과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모두 소실되지 않는다.

스미스 부교수는 “맹장을 제거한 사람들, 특히 몸에 이로운 소화관 박테리아가 몸에서 모두 빠져나간 사람들은 질병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촌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맹장이 위험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병원 신세를 지는 환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채 골칫거리로만 몰려 맹장이 진화 때 사라지지 않은 이유,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로 인식되고 있다.

맹장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맹장 임구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본다. 평균 성인 맹장의 길이는 5~10cm 정도로, 지름은 6~8mm 정도다. 또 사람을 비롯한 영장류나 토끼와 같은 일부 동물은 맹장을 갖고 있지만 개나 고양이 등은 없다.

/연합뉴스

네이버 자율 주행차 조만간 도로 달린다

성능시험 통과...국내 ICT 업체 최초



네이버가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만간 일반도로 시험주행에 나선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만든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주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을 최근 통과, 국토부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증이 발급될길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는 운행 허가증이 언제 발급되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ICT 업계에서는 이미 성능시험을 통과한 만큼 이른바 이달이나 다음 달에 허가증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맡는 네이버 연구개발(R&D) 회사 ‘네이버랩스’의 법인 설립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설립절차가 끝나면 허가증은 바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시범운행으로 자율주행차의 두뇌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한 도심 도로를 달리며 길 위 장애물이나 신호 변경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AI가 스스로 배우도록 해 차량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의 음성인식 AI인 ‘아미카’도 차량에 탑재시켜 운전자가 말로 목적지나 경유코스를 지시하는 기능을 실제 운행에서 다듬을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사 자율주행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기준 ‘레벨3’ 수준으로 운전자가 눈을 감아도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차인 ‘레벨4’ 바로 전 단계”라며 “상용화 시점은 공개할 수 없지만 다양한 파트너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계속 기술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풍 일으키는 ‘요산’ 수치 눈물 한방울로 정밀 측정

한국과기원, 종이검사지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종이에 금 나노입자를 증착한 검사지를 이용해 통풍 원인물질인 요산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 공학과 정기훈 교수팀은 18일 눈물을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종이 표면에 빛을 증폭시키는 나노플라즈모닉스 특성을 갖는 금 나노선을 균일하게 증착, 저렴하고 정교한 통풍 검사지(strip)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눈물 속 생체 분자를 분석해 비침습적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진단 의학이나 약물 검사뿐 아니라 현장 진단 등 특정성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풍은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병으로, 완치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요산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 기존 진단기술은 혈액이나 관절 윤활액을 채취해 요산 결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필사이언스 강연’

오늘 이상천 과학기술연구소장 초청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19일 오후 4시 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이상천〈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초청해 ‘제5회 필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



필사이언스 강연은 최신 과학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광주과학관이 주기적 열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강연에서 이 이사장은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1~3차 산업혁명을 돌아보며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 과학기술 수준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한편, 이상천 이사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

